

# 자원봉사자 줄고있다

자원봉사자가 줄고 있다. 상당수의 교계 복지관 및 복지시설 자원봉사자가 현재를 기준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감소세가 굵은 일을 해야 하는 노력봉사부문에 집중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원봉사자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연꽃마을. 지난해 말까지 25개의 부설기관에서 총 1천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했지만 현재 500여명으로 줄어든 상태. 기존의 활동자들이 상당수 빠져나간 대신 신규가입자가 턱없이 줄었기 때문이다.

한때 1천명을 웃돌던 소적새마을 자원봉사자도 올해들어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소적새마을이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자원봉사자들의 방문일정을 기록한 일지를 분석한

## 교계복지시설마다 인력부족 '발 동동' 연꽃마을 1천명서 5백명으로 급감

결과에 따르면 12월 500여명에서 2월에는 2백50여명으로 급감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기적으로 방문해 온 자원봉사자와 신규가입자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

강릉 자비원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 한달 평균 35명 가량 방문해 오던 것이 최근들어 2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굵은 일은 자원봉사자들도 당수 빠져나간 대신 신규가입자가 턱없이 줄었기 때문이다.

인덕원은 작년말 130명에 달하던 것이 현재 4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식당에서 일할 자원봉사자가 없어 직원들이 대신하

##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어느정도 노력봉사에 익숙해진 자원봉사자들이 실증을 느낄 시점에 도달했다는 분석도 있다.

또 남이 하니 무작정 따라라 하듯 하고 고된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도 감소세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았다. 이밖에 기존의 자원봉사단체를 나눠먹기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신규공급을 발굴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과 봉사에 대한 불자들의 인식부족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같은 감소추세에 대해 일선 관계자들은 자원봉사자들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부층이 경제가 다소 풀렸다고는 하나 여전히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취업일선에 뛰어들거나 부업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워졌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어느정도 노력봉사에 익숙해진 자원봉사자들이 실증을 느낄 시점에 도달했다는 분석도 있다. 또 남이 하니 무작정 따라라 하듯 하고 고된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도 감소세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았다. 이밖에 기존의 자원봉사단체를 나눠먹기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신규공급을 발굴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과 봉사에 대한 불자들의 인식부족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불교자원봉사연합 기획담당 이진원씨는 "보다 젊은 층을 확보해 자원봉사자의 연령대를 낮추고, 자원봉사활동과 생활생활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들이 지속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hwan@buddhania.com)

## "21세기 사찰환경 모델 찾는다"

조계종 사찰환경위 7월10일 해인사에서 모임

21세기 사찰환경의 모델과 방향이 설정된다.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원회(위원장 성조)는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해인사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21세기 사찰환경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이번 모임에서는 해인사를 모델로 조경 가람배치 주변환경 사찰운영 포교 수행 등 수행과 포교를 병행한 환경친화적 한국사찰의 방향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사찰환경감시와 분쟁

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립공원-사찰-시민환경단체가 연계하는 국립공원 단위의 사찰환경보존위 구성과 해인사 우회도로 건설문제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사찰환경위는 8월경 오페수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분쟁시 해결방안을 해당 사찰에서 강구할 수 있는 사찰환경보존지침서를 11월경에 발간한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nia.com)

## 6·25 참전 미군

### 천도재 봉행

### 위령대제위 철거서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미군병사 영가들을 위로하는 천도재가 봉행돼 6·25 발발 제 49주기를 더욱 뜻깊게 했다.

6·25참전 순국순국지원회 합동위령대제봉행위원회(위원장 삼중)는 23일 경북 칠곡 부승산업공장에서 2천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6·25참전병 천도재를 봉행했다.

천도재에서는 김진홍무용단의 승무와 범패의식으로 순국선열을 위로하고 전후에서 희생된 한국군과 미군, 순국지인병, 경찰관, 민간인들에게 헌화, 분향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한국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프레드릭 라이언이병(67, 당시 17세)과 로이(67, 당시 18세)이병이 교계의 초청으로 방한해 의미를 더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nia.com)

## 뉴스 & 뉴스

### 청소년 종교의식 조사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최업)은 21일부터 각 사찰 청소년법회 지도교사와 파라미터청년연합회, 교사 불자회의 협조를 '청소년 종교의식 조사'에 들어갔다.

포교연구실은 또한 어린이법회 지도교사 4백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중이며, 포교·신도관련·종법에 관한 설문조사, 여성불자 워크샵에서도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 광주 통일외집 후원회

불교인권위원회(상임대표 진관)는 23일 비정형 장기수용이 살고 있는 광주 통일의 집 후원회를 결성했다. 진관님은 후원회 결성과 관련해 "광주 통일의 집에는 김동기씨를 비롯한 장기수 4명이 살고 있지만 생활이 매우 어렵다"며 "복에 있는 가족을 만날 때까지 자유로운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이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 청교련 자원봉사 한마당

대한불교청교련연합회(회장 현성님)는 27일 서울 해양양로원에서 99 청소년 자원봉사 한마당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하는 호실천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청소년 자원봉사자 100명은 문화공연과 주변 청소 등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이은자 기자

### 호국 비룡사 진신사리 이운

공군 3975부대 호국비룡사(주지법사 지행님)는 27일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 및 마정수기 대법회를 봉행했다. 대우 여래선원장 법산님에 의한 진신사리 이운을 주관한 호국비룡사(주지법사 지행님)는 27일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 및 마정수기 대법회를 봉행했다. 대우 여래선원장 법산님에 의한 진신사리 이운을 주관한 호국비룡사(주지법사 지행님)는 27일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 및 마정수기 대법회를 봉행했다.

김재경 기자

### 법타스님 소청심사 제기

지난 해 조계종사태와 관련해 호계원 심판중인 법타스님(은혜사 주지)이 초심호계원의 판결이 위법이라며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법타스님은 21일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증원)에 제출한 판결무효청구서를 통해 "초심호계원의 심리절차는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함에도 전혀 알리지도 않고 결석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재심호계원의 심리는 소청심사 청구중이어서 진행되지 않겠다. 정성운 기자

### 조계종 직할교구 보선

조계종 직할교구관리위원회(위원장 해담)는 광복님의 종회의원 사퇴에 따라 보림선교를 7월 23일 임시로 폐교하고, 광복님은 도선사 주지에 임명됨에 따라 9일 종회의원직을 사퇴했다. 임후보자 등록기간은 7월 12~14일이다. 정성운 기자

# 가야산 관동도로 재설계 '환경훼손 여전' 해인사·환경단체 노선변경 요구

가야산 국립공원을 가로질러 88고속도로로 이어지는 국가지원 지방도로 59호선의 재설계 노선이 기존 노선과 별 차이를 해 인사와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남도는 24일 합천군 가야면사무소에서 국가지원지방도로 59호선(경남 하동-경북 성주)의 일부 구간인 가야-봉산간 왕복 2차로 축조공사와 관련, 재설계 노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변경노선은 △성기리 죽전리 구간은 마을부근을 지나는 기존 도로를 활용할 것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로폭을 11m에서 9m로 축소할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환경보호추진에서 문제가 되는 국립공원내의 구간은 기존노선을 그대로 채택, 약 1km 길이의 터널과 8개의 교량이 그

대로 건설되는 등 환경파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인총림대책위의 성공성님은 "주민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성기리~죽전구간만 변경하고 환경부에서 지적한 국립공원내의 구간은 그대로 방침했다"면서 "이는 노선재설계의 취지를 정면에서 위반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59호선 도로가 건설되면 도로를 따라 상권이 형성되어 홍류곡계곡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높아 해인사와 환경단체에서는 국립공원을 비껴가는 노선을 주장해 왔으며 환경부에서도 지난해 국립공원내 도로개설 불가라는 입장을 표명해 바 있다.

또한 이 도로는 가야산은천과 합천호 압곡자연휴양림, 해인골 프장 등을 연결하는 관광벨트화

의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자칫 해인성지의 소비성 위락단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지원지방도로 59호선은 경남 하동에서 경북 성주군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01km의 도로로 문제가 되는 구간은 새로 건설예정인 가야면 치인리에서 성기리까지의 11.48km구간이다.

이윤호 기자 (yholee@buddhania.com)



### 호국금강사 합동위령재

6·25전쟁으로 희생된 전몰장병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제16회 합동위령대제가 25일 중부전선 5군단 호국금강사(주지법사 김상래)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고산 총무원장, 천태종 운대 총무원장, 서도각 불교진흥원 이사장, 정동호 합동위령재운영위원장과 5군단 부군단장 등 군·관·민 불자 5백여명이 참석했다. 합동위령대제는 지난 84년 주한 외국사절과 불교도 5천여명이 모여 처음으로 북한군 영령까지 천도하는 합동위령재를 지낸 이래 올해로 16회째를 맞았다. 조천=고영배 기자

### 조계종 포교사단

### 지역별 전문화교육

조계종 포교사단(총재 정연)은 '7월10일부터 지역별 전문화교육'에 들어간다.

△부산·경남지역 1차 전문화교육은 10일(오후 2시), 11일(오후 6시) 부산 보전복지불교대학(3

분야)과 범어사(1·2·4분야)에서 각각 열린다.

△대구·경북지역은 11일 오후 1시 동화사 △전주·전북지역은 11일 오전 10시 전북불교대학 △광주·전남지역은 18일 오후 1시 향림사 △대전·충청지역은 24일 오후 5시 한국불교진흥원에서 각각 열린다. (02)737-7588 김재경 기자

치인이 내는 밥 한끼 먹자고 시간과 돈을 들여 서울까지 물색없이 왔다가 간 꼴이다. 그러나 "한화합의원이 내년



도 필선 <취재1부 기자>

충선에 뜻이 있는 것 같다"는 한 스님의 귀뜸이 아니더라도 이날 만찬에는 정치인의 복선이 깔려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갖게 한다. 물론 정치인

인 한 의원의 이같은 행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은 표와 여론의 향방을 좇기 마련이다.

문제는 불교계를 대표한다는 지도자들의 처신이다. 아무리

### 식사나 한끼(?)

사적인 자리이고, 조건없는 초청이라 하더라도 정치인들의 초청에 앞뒤 생각없이 참석하는 모습은 여법하지 못하고 보기에 민망하다. 또 이런저런 뒷말이 들려 오기도 한다.

23일 만찬에 참석했던 영남 불교 인사들이 정치인의 만찬

에 참석하기 위해 '물색없이' 서울에 왔다갔다했다는 말이 불교계에 회자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일 것이다.

선거철이 본격 다가오면 불교행사에서 정치인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될지도 모른다. 축하차 오겠다는 정치인들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분말이 전도되어 불교행사가 정치인들의 생색내기 말잔치로 채워지고 정작 불자들은 뒷전이 되어서는 안된다. 불교의 위상과 자주는 우리 스스로 지키고자 노력할 때 빛을 발하는 것이다. (psdo@buddhania.com)

**2천만인의 깨달음을**  
참수 명으로 이끄는 신명의 길잡이.

**현 대 불 교**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양양지국 0396-672-5556  
창주지사 016-347-2938  
강릉지사 0391-43-5599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94-8859  
진주지사 0591-747-0106  
고성지국 0556-72-0078  
제주지사 064-738-5000

**큰스님 요즘 장경 보살시간 없으시죠!**

정원스님의 **增補 玄句集**

一. 本書는 고려대장경, 신수대장경, 속장경, 한국불교전서 등 全內典과 논어, 도덕경 등 外典 若干에서 參學의 指南이 될 玄妙章句를 抄하여 한글 번역한 것임.

一. 原文과 譯文을 분리하였고 上中下卷으로 편집하되 上卷 諸經集352件, 中卷 經外集1127件, 下卷 句頌集1452件 都合2931項, 原文만 一十五萬餘字이며 每項目마다 出典을 세밀히 밝혔고 특히 하권 구송집은 첫째 字의 畫數 順으로 安排하였음.

一. 此集은 抄譯者가 출가 이래로 삼십여 년 간 佛典을 열람하면서 艱요한 玄句를 수시로 拔萃하여 쌓아두었다가 금년에 인연이 도래하여 출간하게 된 바 특히 抄譯者가 직접 毛筆로 原文과 譯文을 한 字 正성을 다해 書寫한 것이며 增補라고 이름한 由來는 몇 년 전에 역시 抄譯者가 출간한 바 玄句集을 대폭 修正補完한 연구임.

총판대리점 **법우당**  
서울시 강북구 수유2동 316-13  
TEL : 994-4437 FAX : 994-4438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오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인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질(배꼽)에 착용하면 방항아용식품의 성분이 신질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배아가 엄마의 땃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질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생리통·기미 33세권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했었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 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 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한 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의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라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깨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규정동 장영희)

매달되는 증상에 ( ) 미심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다.
7. 우울증이 있거나 귀욕이 있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 편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빠르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노나 감당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